

새 가나안을 정복하라

- 김형희 / 2001. 12. 11 -

전 IBM 수석 전무, 현 바이텍시스템 회장, 한국정보처리학회(KIPS) 이사

성경을 보면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백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백년의 세월 동안 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시어 구원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첫째는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하는 곳마다 도시를 세워 헬라인들을 이주시키고 현지인과 혼인을 권장하여 두 사회의 융합을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를 정착시켜서 헬라어가 자연스럽게 국제통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역 성경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헬라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이 모든 일들은 상당히 늦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때에 맞춰 언어를 통일하여 준비시킨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대로 로마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갈 길을 만드셨습니다. 로마는 법률과 군대의 힘으로 안정과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에 군대를 빨리 보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여 새로운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점령지의 도시를 잇는 도로가 8,500k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어를 통일시키고 하이웨이가 건설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박해를 받던 제자들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로마가 건설한 바로 그 도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인 지금은 영어가 공용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영어권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영어를 통해 많은 민족들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 번역 프로그램의 개발로 인터넷 상에서도 복음을 자국어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자동 번역 기술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새로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인터넷은 지식의 고속도로입니다.

로마가 건설했던 도로와 비교할 수도 없이 빠르고도 넓은 인터넷 고속도로가 개개인의 사무실과 집을 구석구석 연결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세계 어디든지 전달되는 스피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인터넷 하이웨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디지털 사도행전의 무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은밀히 혼자 볼 수 있다는 인터넷의 속성상 그 유혹은 더욱 벗어나기 힘들어 음란문화가 그야말로 독버섯같이 퍼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예찬하고 동호회를 결성하여 세력을 넓히려 합니다.

자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자살이 우리를 고통과 묶임에서 자유케 할 것이라고 손짓합니다.

이런 유혹에 빠져들어 돈을 받고 자살을 시켜주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하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새로운 인터넷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사이버 세계를 두려움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새 가나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열 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거인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우리의 밥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인터넷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언어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어의 장벽을 없애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간과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지구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이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새로운 땅 끝인 것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